아름다운재단
The Beautiful Foundation

열여덟 어른, 공명하다,

아름다운재단의

가치 있고 근거 있는 임팩트를 찾아서

정선욱 |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공 교수

- 오늘의 발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임팩트, '열여덟 어른' 캠페인의 임팩트에 관한 내용.

- 아름다운재단은 2001년부터 퇴소 후 자립에 대한 지원을 시작. 늘 비어 있는 곳을 찾아 사람에 주목하면서 자립준비청년 관련 지원을 하였음. 아름다운재단이 만들어갔던 길이 자립준비청년의 존재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것이 이들을 돕는 다양한 행동(예, 기부)을 낳았음. (호명에서 인정으로)

- 두 편의 발표는 아름다운재단이 무엇을 이루어 냈는지를 성과, 임팩트를 중심으로 잘 보여주고 있음.

자립준비청년사업의 임팩트

- 선도적 자립지원 모델의 견인
- 지원 연령의 확대와 선정 기준의 융통성
- 문턱을 낮추고 대상을 확대함
-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맞춘 지원
- 자립 역량의 강화
- 다양한 자원의 결합을 통한 실질적 자립 보장
- 청년 권리의 확장으로 관점 전환
- 결과보다 과정을 강조하는 이용자 중심 실천
- 나눔의 선순환

'열여덟 어른' 캠페인 임팩트

- 캠페이너: 스스로 앞장 서 목소리를 내며 변화를 이끄는 자립준비청년
- 자립준비청년: 자립준비청년들의 목소리가 공명하여 확산
- 사회: 모두를 위한 사회변화의 방향

- **두 편의 발표가 과거의 성과, 임팩트만을 제시하지 않고 과거를 성찰하면서 미래의 과제를 제시한 점이 또한 "아름다운재단 답다"는 생각이 들었음.**

- 새로운 사업 방향으로
  - ✓ **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:**
    - "현장의 이슈를 발굴, 가장 빠르게 개입, 그리고 문제 제기를 공론화하는 일"
    - "가족, 타인과 함께 하는 자립"("관계를 끊어내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'고립'이 아니라, 의논할 어른, 공감할 친구, 활동할 동료와 '함께하는 자립'을 위한 프로그램 고안을 강조)
    - "경계를 넘나들기"(공공, 민간의 완전한 파트너쉽, 공공과 민간의 협의체 구성)

  - ✓ **'열여덟 어른' 캠페인:**
    - 자립준비청년이 "보통의 청년"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를 계속 변화시키기
    - "보통의 청춘"으로 인식하는 사회 만들기

이상의 내용에 동의하면서, 추가 고려사항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함

열여덟 어른, 공명하다,

- **첫째, 아름다운재단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임팩트는 무엇인가?**
  아름다운재단이 자립준비청년에게, 기부자에게, 그리고 사회에 약속한(할) 임팩트는 무엇일까?

  ✓ '자립준비청년이 보통의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만들기' 혹은
  '자립준비청년이 가족, 타인과 함께 하는 자립 일구기' 등으로 보임.

  ✓ '보통의 청년', '보통의 청춘'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?

  ✓ 보통의 뜻은: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삶,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, 일반적인 것

  ✓ 보통의 청년, 보통의 청춘이라고 할 때, 그것이 무엇인지 희미하게 그려지기는 함.
  그렇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할 필요가 있음.
  그래야 임팩트를 함께 의식하고 임팩트를 만드는 과정에 여러 사람을 참여(혹은 연대?)시킬 수 있음.

이상의 내용에 동의하면서, 추가 고려사항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함

열여덟 어른, 공명하다,

- ✓ 그래야 또 임팩트를 측정, 관리할 수 있음.

- ✓ 한편, 임팩트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 관리라고 할 수 있음. 혹시 의도하지 않았던 임팩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?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.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임팩트는 없을까? 이것을 살피는 것 또한 필요해 보임.

- ✓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초창기에는 산출 위주의 변화(예: SNS 언급 혹은 조회되는 수의 증가)로도 매우 훌륭하고 고무적인 것임. 즉, 많은 것이 나아지고 있다. 좋아지고 있다. 증가하고 있다로도 충분함. 이제는 임팩트 달성을 입증해야 할 책무성을 갖게 된 것은 아닌가 고민할 필요 있음.
  임팩트 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임팩트에 대한 정의, 측정 지표가 설정될 필요 있음.

이상의 내용에 동의하면서, 추가 고려사항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함

- **둘째, 임팩트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?, 그것을 누가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?**

  ✓ 성공을 가져온 요소들을 정리해낼 필요 있음. 함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요소를 또한 정리할 필요 있음. 조력자의 역할을 잘 살필 필요가 있음.

  ✓ 오늘 발표에서 논리모델이 나왔던 "가정" 혹은 가설의 출처를 정리할 필요 있음. 그것(출처)은 기존이론이나 지식일 수도 있고 아름다운재단의 오랜 지원사업의 실천 경험일 수 있음. 후자를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함.

  ✓ 아름다운재단의 오랜 실천 경험을 통해 임팩트 달성에 유용한 전략(인과관계)을 추려낼 필요 있음. 이를 위해서는 연구활동가가 필요함.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3의 조금 비슷한 형태였음. (LAB 2050 사례)

<2023 솔라시(Sollaci: Solidarity of Labor and Civic Society) 포럼>의 연구활동가 공론장 후기 중

윤형중 LAB2050 대표는 사회 문제의 개선 과정에 반드시 있는 3가지는 연구, 활동, 공론화이고 이를 실행할 주체는 연구자, 활동가, 공론자(미디어 & 소셜미디어)임을 먼저 짚었다. LAB2050은 이 세 주체가 잘 조화되고 실제 사회 문제 해결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'연구활동가들의 문제해결 플랫폼'이 되고자 한다고 소개하였다. 연구활동가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, '연구와 현장의 경계를 넘나들며 해법을 모색하고 실행을 도모하는 주체들'로 소개할 수 있다. 실제로 전세사기 대안 모색, 전좌석 안전띠 확대에 영향을 미친 연구, LAB2050에서 진행했던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효과측정 연구 등 연구와 활동이 결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 ~~(중략)

(출처: https://medium.com/lab2050/연구활동가-여러분-여기-모여요-064531fa8554)

연구활동가, 공동생산(CO-PRODUCTION) 개념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됨

- 공동생산은 이용 주체가 일련의 정책 및 서비스 과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정부 또는 기관,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어 진행하는 것을 의미(Evers, 2003; 김미옥·박광옥, 2020에서 재인용).

- '경험이 있는 전문가(연구활동가)', '자격을 갖춘 전문가'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데 유리한 방식 (McConnell et al., 2019).

- 공동생산의 수준은 ~에게 하기(doing to), ~을 위해 하기(doing for), ~와 함께 하기(doing with)로 나뉨[그림].

[그림]공동의 사다리(The ladder of co-production)(SCIE, 2019)

이를 자립준비청년과의 관계에 적용하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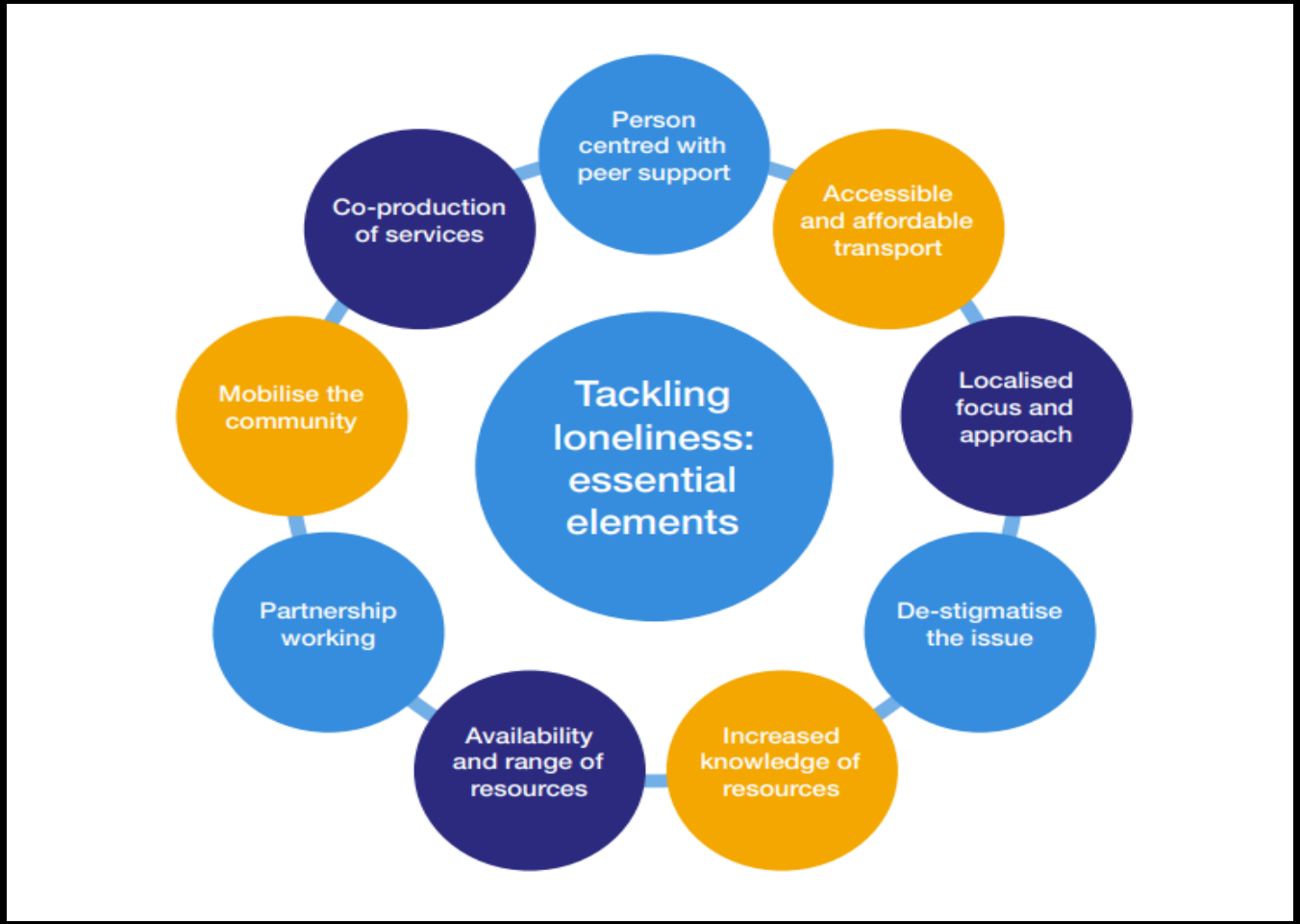
-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하는 것(Doing to)로
  이들을 수동적인 수혜자로 보아 강하게 권하고 가르치는 것

-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하는 것(Doing for)으로
  정보 제공하기, 자문하(구하)기, 참여시키기 등이 해당

-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하는 것(Doing with)으로
  동등한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 속에서 공동 설계하고 공동 생산하는 것임.

- 향후, 연구활동가와의 공동생산을 통해, 임팩트 달성에 도움이 되는 전략, 도움이 되지 않는 전략, 조력가의 역할 등을 발견할 필요 있음.

[출처] A Connected SOCIETY(UK, 2018)



[출처] A Connected SOCIETY(UK, 2018)

아름다운재단
The Beautiful Foundation

열어덟 어른,
공명하다,